

개성공단 부지 발굴조사 참가기

이승원 *

난 개인적으로 일상이란 단어에 대한 선입견이 강한 편인 것 같다. 그것은 현재까지 나의 생활들이 평범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상 예측가능한 일정속에서 머물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생활에 약간의, 아니 상당한 의외의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6월이었다. 그때 난 안성 신소현동 발굴조사를 위해 2달간 머물렀던 고달사지에서 얼마되지 않는 짐을 정리하여 작은 내 차에싣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천 IC를 막지나 갔을 때쯤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보니 사무실 번호였다. 괜히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처리한 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레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으나, 그 전화는 실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다. 대뜸하시는 말씀이 개성에 다녀와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때 갑자기 북한에 있는 개성이 생각나 조금 당황하였으나 실장님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김상익 과장과 통화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다. 이때 잠깐 흥분과 걱정이 교차되면서 항상 예측 가능했던 나의 생활에도 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차를 안성이 아닌 수원사무실로 향하였다. 난 사무실에서 토지공사 김상익 과장과 통화 후 이번일이 개성공단건설과 관련된 문화재 시·발굴조사이며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남북공동조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북한을 가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에서 방북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토지박물관에서 지표조사와 일부지역의 시굴조사를 위해 이미 개성을 몇 차례 다녀온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일상에서 벗어난 하

* 前 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現 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C·I·Q 외부 군사분계선 앞



C·I·Q 내부

루가 지나고 있었다. 며칠이 정신없이 지난 후 수유리에 있는 통일교육원에 방북교육을 받기 위해서 출발하였다. 그곳에는 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 현재 남북 경협 사업으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북한에 오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매달 약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북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1시간씩 3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일반적인 사정과 정치형태 일반민들의 생활상 및 입국절차, 방북시 유의사항을 듣고 강의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토지공사 직원으로부터 7월 5일 개성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며 조사원으로는 토지박물관 최형균 선생, 이준호 선생, 외부조사원으로 경기도 박물관의 송만영 부장, 고려문화재연구원 유병린 선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윤선영 선생, 군토 장비 이경래 사장과 나를 포함하여 총 7명이 방북하게 된다는 것과, 현재 그

곳에서는 토지박물관 김상익 과장의 책임하에 토지박물관 직원들이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2004년 7월 5일 07:00 우리는 개성으로 가기 위해 분당에 있는 토지공사 사무실에 모여 승합차로 출발하였다. 방북시 이용할 차량의 경우 미리 통일부에 신고하면 개인 차량을 가지고도 개성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임진각 부근에 위치한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되어 있는 C·I·Q (출입국사무소)에서 간단한 출국 수속을 받아야 한다. 이곳은 군사분계선 통문 남측에 설치된 단층건물로서 내부에는 방북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통일부 장관이 승인한 방북증명서를 지급받고(방북시에는 여권대신 방북증명서를 사용함) 방북서류를 작성한 후 출국심사장을 통하여 C·I·Q 밖에 있는 우리가 타고온 승합차에서 다시 대기하였다. 그동안 북한으로 출입하는 차량에는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탑승인원을 알리는 종이를 전면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고 번호판은 가려야 한다. 또 조수석 창밖으로는 삼각형 오렌지색의 깃발을 달게 되어

있다. 약 15분쯤이 지나자 아스팔트 포장에 개성이라는 흰글씨가 있는 군사분계선의 통문이 열리면서 짚차에 4명의 무장군인을 태우고 우리 차량 선두에서 비무장지대로 안내하였다. 이때까지는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실감이 별로 나지 않았으나 잠시 후 남방한계선을 지나자 생태이동통로라는 풋말이 보이고 경의선 육로 개통을 위해 만들어진 왕복 4차로의 도로가 나타났다. 우리가 달리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외측으로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으나 철책선이 쳐져 있어 이곳이 5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다. 2km 가량을 왔을 때 우측에 개성시라는 입간판이 나타나며 북측에서 북한군 짚차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호송해주던 한국군들은 그곳에서 방향을 남측으로 돌려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탄 승합차는 그 순간에 남방한계선을 넘어 북녘 땅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곳에는 방금 본 개성이라는 입간판 외에는 남북을 가르는 어떠한 표식도 없었다. 우리는 북한군 짚차를 뒤따르며 주위 경관을 둘러 보았다. 불과 1분전까지만 해도 무성하던 수풀은 보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지역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본 북녘 땅의 첫인상이었다. 남과 북의 비무장지대를 잇는 길은 남방한계선 2km로는 모두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으나 북측은 그제야 공사를 진행하는 중인지 작업 중인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상의는 우리나라 흰색 런닝에 마치 체육복처럼 생긴 누런바지를 똑같이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에는 북한군 정복을 입은 이도 가끔씩 눈에 띄었다. 곧 북측의 군사분계선 통문을 통과 하자 우리 앞쪽에 호송하던 북한군 짚차가 정차하며 경무관(현병) 2명이 내려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 승합차에 있는 인원들을 서류와 사진으로 대조하고 간단한 차량 검사를 실시한 뒤 보내 주었다. 그곳에서 약 1km도 못되는 지점에 북측 C·I·Q가 위치하였는데 남측과 달리 컨테이너 3동을 연결하여 출입국 심사장을 마련해 놓았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할 북한 참사(민경련 소속의 안내원) 1명과, 미리 방북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토지박물관 김상익과장이 우리를 마중 나왔다. C·I·Q에서 짐검사 및 간단한 입국심사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승합차에 올랐다. 이곳의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직되지 않고 약간 자유로운 느낌마저 들었으며 북한 세관원들도 친절하였다. 우리는 개성공단 토지공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간단한 현장설명 및 주의사항을 듣고 마중 나온 참사와 인사를 나누었다. 참사는 잠자리와 식사시간만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토지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아산에서 시공중이었으며 당시에는 1차 개발로 100만평이 공단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시·발굴조사는 2004년 4월초, 공단 개발을 추진하는 남·북측 실무자 사이에 개성공단 부지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를 합의하여 2004년 4월 12일과 13일에 걸쳐 토지공사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의 문화유적 조사와 절차를 협의하였고 4월 20일부터 12개 지점에 대해 유물산포지를 선정하였다. 문화재조사는 촉박한 시간과 현지여건상 시굴과 발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12개 지점 중 8개 지점의 시굴은 토지박물관에 의해 완료된 상태였고 2개 지점은 시굴중이었으며 나머지 2지점도 시굴조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다. 개략적인 상황을 듣고 우리는 참사의 안내를 받으며 8지점으로 이동하였다. 8지점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이 같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곳의 지형은 낮은 가지능선 끝자락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릉 하단부에 민가 2채가 있었으며 당시 북한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굴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확인차 토층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인민복에 창이 달린 모자를 쓴 50대 초반쯤 보이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손수호 소장이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점심식사를 위해 다시 토지공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식사와 잠자리는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봉동면 농업학교에 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농업학교는 현장앞 도로에서 보이는 건물로서 차량이 없이 도보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개성공단 토지공사 사무실과 숙소 및 식당은 컨테이너로 이루어졌는데 식당에서는 20대 초반의 북측 여성들이 밥과 청소를 해 주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음대출신이라고 토지공사 직원이 알려 주었다. 식사는 거의 모든 부식을 남측에서 가져오고 북측사람들이 요리만 해 주었는데 대체적으로 음식이 남측에 비해 싱거웠다. 식사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주변 경관을 보기위해 토지공사 사무실 주위를 둘러 보았으나 사무실 담 밖으로는 참사의 안내 없이 돌아다닐 수 없었다. 토지공사 숙소의 동측 펜스 사이로 수십 미터는 족히 되 보이는 높은 철봉에 펄럭이는 두 개의 깃발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오는데, 알고보니 남측의 판문점 대성동 마을과 북측의 평화리 마을을 알리는 태극기와 인공기였다. 개성공단의 위치는 북측분계선에서 약 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개성시내와 휴전선 중간 정도에 있는 진봉읍에 위치한다. 조사가 진행될 지역은 서쪽의 진봉산과 북쪽의 흥륜산, 남쪽의 덕물산에 이어지는 나지막한 구릉과 그 사이에 발달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이들 산지에서 시작되는 지천이 조사지역의 서쪽 경계부근에서 만나 삼봉천을 이루고 삼봉천은 조사지역을 남북으로 나누며 동서방향으로 흘러 조사지역 바깥에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사천강으로 합류되면서 하천 주변 편평한 충적지를 형성시켰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나는 5지점의 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일단 다른 조사원과 같이 승합차로 이동하여 5지점에 내린 후 나머지 조사원들은 2, 10, 12지점으로 이동하였는데 참사가 오기 전에는 단독으로 조사지역을 벗어 날 수 없다고 하였다. 5지점은 지표조사 당시 건물지의 부존 가능성 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던 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부 가장자리 덕물산 가지능선 말단부 선상지에 위치하였다. 남측으로는 민가가 1채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10세 가량의 어린이들이 개울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측 능선에서는 흰색의 염소무리가 풀을 먹고 있었으며 거기서도 나무는 볼 수 없었다. 우선 시굴조사를 위해 주변 지세를 촬영하고 구획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사진 촬영은 군

인들만 찍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자유로웠다. 하루 일과를 마친 수 다시 참사와 조사원들이 나를 토지공사 사무실로 데려 가기 위해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간단한 미팅을 가진 뒤 숙소가 배정됐는데 토지공사 사무실의 숙소가 부족해 그곳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현대아산 숙소를 배정 받게되었다. 현대아산 사무실은 5지점 서측에 위치하였는데 남측에서 올라온 기술자 및 현대아산 직원이 생활하는 곳으로 숙소는 3×9m의 컨테이너를 3등분하여 중앙에는 화장실 및 샤워장 양쪽으로 방을 만들고 방마다 옷장과 에어컨 TV등을 설치해 두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자 TV부터 켰다. 북한 방송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랬는데 웬일인지 남측의 방송만 나왔는데, 알고보니 그곳은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여 북한 방송은 볼 수 없었으며 남측 방송만 시청할 수 있었다.

개성에서의 첫날밤은 그곳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남측방송을 보며 지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5지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 구획작업을 한 말목과 실이 밤새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없어진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말목을 노출 부분이 거의 없이 다 박으며 반복작업을 실시하였다. 오후가 되자 굴삭기를 가지고 이경래 사장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이 현장조사를 돋기 위하여 5지점으로 왔다. 그 중에서 제일 선임자는 리창진 실장으로 마른 체형에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항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다. 시굴조사를 실시하며 북측 연구원들과 한 두마디씩 말도 오가며 가벼운 농담까지도 하게 되었다. 북측에서는 우리와 같이 장비를 이용한 발굴조사는 해 보지 못한 것 같았으며 시굴조사보다는 장비에 관심을 더 보이는 듯하였다. 북한의 발굴 체계는 우리와는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인부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조사원과 조사보조원이 인부를 부리며 일을 하는 방식이나 북측의 경우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학예연구사들이 있고 고고학연구소 소속으로 발굴대라는 것 이 있다. 발굴대에는 발굴대장과 발굴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조사와 인부들이 할 일들까지 모두 그들이 맡아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석한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은 36명 이상이었으며 그들 중 학예연구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또 하나 우리와의 다른 점은 유구보다는 유물에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곳에서는 역사시대 특히 고려, 조선시대의 유적은 국가에서 인정할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사적, 혹은 국보 보물급의 유적 유물이 아니면 조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조사는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이었으며 하급자보다는 상급자들이 더욱 조사에 책임을 가지고 열심인 것 같았다.

시굴조사 3일 후 5지점 지구 서측경계지점에서 건물지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지점은 곡간부에 위치하고 있어 표토를 제거하자, 약 80cm 내외의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특히 남측 구릉부로는 현대아산 중기사무소를 만들며 성토한 토사가 쌓여 있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길의 방향이 바뀌어 조사지역 서측으로 유입되고 있어 조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개성공업지구 동남부에 위치하는 2지점 조사는 송만영 선생의 지휘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일대는 해발 29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지인데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의 남쪽과 북쪽에서 동측으로 뻗어 내린 두 개의 작은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넓고 평탄한 경작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평면이 말각장방형인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즐문토기 포함층이 있어 남측에서 온 조사원들이 대부분 그 지점에 투입되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저녁시간에는 각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정리를 하며 보냈다.

그곳에서 북한술을 마실 기회가 많았다. 가장 널리 마시는 술을 보면 소주로는 도토리소주와 영통소주가 있다. 도토리소주는 라벨에 도토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소주는 남측보다 도수가 높으며 단맛이 덜하다. 영통소주는 개성시 영남면 현화리에 있는 영통사를 상징으로 하는 소주인데 라벨에 영통사대각국사비 측면이 그려져 있다. 리창진 실장에 의하면 영통사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하였고 곧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당시에는 복원중이라 하였다. 맥주는 대동강맥주를 가장 선호하는데 남측의 맥주처럼 쏘는 맛이 없으며 우리의 입맛으로는 약간 김이 빠진 듯하였다.

한창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을 독촉하며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현재 평양에서 해야 할 과업이 있어 단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상 2지점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5지점이 문제였다. 현재 건물지를 노출하는 상황에서 북측조사원들이 철수를 하면 공동발굴의 성격상 우리끼리만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고학연구소 손수호 소장은 북측연구원들을 모두 5지점으로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많아진 인원을 나 혼자 통제하기에는 힘이 들어 2지점에 있는 우리측 조사원들도 같이 조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북측조사원들은 조사 속도는 독보적이었다. 손수장의 지시에 따라 거의 일사철리로 조사를 진행하여 3일 만에 건물지를 완전히 노출시켰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날 저녁 바쁜 일정으로 피곤하여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천둥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전날 굴삭기로 물길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별일 없겠지 하며 다시 잠을 청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현대아산 중기사무소에서 곡간부에 쌓아 둔 토사가 터져 현장 전체를 덮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노출시켰던 건물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유구 위로 토사가 약 1m 이상 덮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보다 더 당황하는 것은 북측 연구원들이었다. 이미 발굴을 완료하고 평양으로 돌아가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생겼으니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았다. 결국 다시 협의를 하여 북측 리창현 선생과 리창진 실장, 지화산 박사, 장 선생 등 소수의 인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 인원은 단체사진 촬영 후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인부수급이 문제였다. 남측처럼 인부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는 관계로 현대아산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인부를 15명 가량 확보하여 조사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현장은 거의 뺀 수준으로 무릎까지 빠지

는 상황이었으나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굴삭기를 투입하여 토사를 제거하며 물길을 다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제가 많은 방법이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현장조사기간은 7월말까지로 북측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측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 투입된 북측인부들은 발굴조사는 물론 처음하는

사람들로 여러가지 일이 신기한 듯 하면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었다. 북측인부들은 조장의 지도 아래 일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남측 사람보다는 표정들이 밝은 편이었다. 북측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이에게 담배를 잘 권하는데 주로 집에서 담배 잎을 말려 놓고 신문지로 말아서 태웠으며 우리에게도 권하였다. 남측에서 가져 간 소주를 권하자 한 잔 마시고는 너무 달다며 사양하는 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모양이었다. 결국 남측과 북측 사이에 입맛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먹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다. 개성공단개발지구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에 북측군인들의 초소가 있는데 그곳이 공단개발지구 경계로서 남측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곳 경계지점에 봉동관이라는 남측사람들을 위한 식당이 있었는데 들은 바로는 남측 사람들을 위하여 평양 옥류관에서 개성분점을 낸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철수하기 전 날 그곳에서 환송식을 하였는데 남측 조사원 전원과, 북측에서는 손수호 소장, 리창진 실장, 이창현 선생, 지화산 박사, 장 선생, 정 참사 등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다. 내부는 원색의 장방형 탁자와 앞에는 약 50cm 높이의 무대와 노래반주기가 있었으며 손님은 우리만 있었다.(북측 일반인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였다) 봉동관은 매일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하면 그때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하였다. 우리가 도착하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20세 중반의 아가씨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음식들은 주로 고기류가 주종이었는데 타조고기를 비롯하여 4, 5가지의 고기와 반찬, 그리고 술들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북측 여성들이 고기를 구워주며 뒤에서 술을 따르는데 남측과는 달리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계속해서 따라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몇잔의 술을 마셨는지 가늠하기 힘들어 좀 더 빨리 취하는 것 같았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르자 북측 여성들이 노래반주기와 기타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의외로 먼저



남북조사원 단체사진. 앞줄 우측 리창진 실장 뒷줄우측 지화산 박사, 뒷줄 가운데 손수호 소장, 왼쪽 세 번째 리창현 선생

남측의 노래를 불렀는데 칠갑산, 황성옛터 등 주로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아침 이슬 류의 곡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노래들을 우리와 함께 무대에서 같이 불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북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북측의 노래는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이 불렀는데 주로 김정일 장군노래와 조국에 관련된 노래가 많이 있는 것 같았고 우리와 같은 감성적인 가사의 노래는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 자리가 마무리되자 후식으로 냉면이 나왔다. 나는 원래 냉면이라면 사족을 못쓰는지라 엄청 기대를 하며 면발을 들어 올렸는데 웬걸 내가 기대 했던 맛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냉면에는 얼음이 들어가지 않아 더운 날씨에 미지근하였고 면발은 마치 불은 것처럼 힘없이 끊어졌다. 남측에서 먹던 시원하고 쫄깃쫄깃한 냉면과는 전혀 달랐다. 북측의 전력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봉동읍 일대에 불이 들어 온 것을 거의 보지 못했고 우리 숙소의 경우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공급하는 실정이었으며,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으니 얼음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봉동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수시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아예 처음부터 식탁에 촛불을 준비해 두었다. 어찌 생각하면 그런 맛밋한 맛이 본래의 냉면 맛인지도 모르겠다. 하기야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 북측 냉면이 입에 맞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봉동관의 회식은 그래도 처음 경험하는 나에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

2, 5지점의 조사는 시간이 촉박하여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으나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사기간 중 현장 실측문제가 남아 있었다. 건물지는 1칸에서 2칸 이상의 소형 건물지이나 담장지가 같이 노출되어 실측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장 조사기간이 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남측조사원과 북측의 장 선생을 포함하여 5명이 함께 실측을 하여 2일 동안 유구의 평면과 입면 단면까지 실측을 완료하였다. 그곳에서는 남측처럼 조사보조원이나 아르바이트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유물세척에서 실측까지 조사원이 전과정을 다해야 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기간에 2개지점 시굴과 발굴을 마무리하고 내부에서 보고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 및 도면 자료까지 다 북측에 넘겨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는 모두 준비를 하여 남측으로 돌아가야 했다. 각자 컨테이너에서 유물세척 및 실측과 사진촬영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8월 11일 날 있을 현장설명회 준비도 함께 진행하였다. 북측에서는 지도위원회라는 개념이 없어 처음 협의 때는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북측에서는 발굴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왜 제 3자에게 그러한 문의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여 결국 명칭을 현장설명회로 부르기로 하였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성시내에 한번 다녀 올 기회가 생겼다. 개성공단이 위치한 봉동읍에서 시내까지는 약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 승합차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니 경의선 철도에서 대북지원식량이 대한통운 차량에서 기차역으로 하역하는 광경이 보이기도 하였다. 개성은 북

한의 3대 직할시의 하나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으로 구성되고 인구 40만을 보유한 제3의 도시였으나 시 외곽의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시내에 인접하자 비포장 도로가 벽돌을 깐 길로 바뀌었으며 개성시내 중심부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다. 개성인근의 첫인상은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초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내의 개천에서 주민들이 빨래를 하는 한편으로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시내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북한 사회를 찬양하는 대형의 선전벽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는 길 험난하여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로서 현재의 북한 실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내에는 거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 차량이 지나가자 북한 주민들이 가끔씩 손을 흔들기도 하였다. 그때 남쪽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개성 남대문이 우리 차량 좌측으로 보였는데 그곳은 목적지가 아니라서 하차를 하여 돌아볼 수는 없었다.

개성 남대문은 북안동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에 ‘도시건설계획’ 이란 구실로 남대문을 철거하였다 개성시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며 동대문과 서소문은 모두 헐리우고 말았다고 한다. 남대문의 문루는 건축된 아래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하다 1899년 대대적인 보수가 있은 후 6·25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불타버린 것을 1953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라 하였다.

개성시내에는 10층 이상의 건물도 꽤 있는 것 같았는데 대부분의 건물 유리창은 유리가 아닌 비닐로 막아져 있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여러 가게의 간판 중에서 ‘비니루 수선집’이 있어 유리보다는 비닐창이 넓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심부의 도로는 상당히 넓고 계획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거리는 깨끗한 편이었다. 우리가 먼저 간곳은 선죽교였다. 어려서부터 역사 시간마다 많이 들어 왔던 곳인데 불과 10m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석교였다. 안내원의 설명으로는 아직도 정몽주의 핏자국이 보인다고 하였다.



선죽교



한호 필 선죽교 비

선죽교 옆에는 난간 없는 돌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조선 정조4년에 정몽주의 후손인 개성 유수 정호인이 사람들이 선죽교로 다니지 못하도록 새로이 설치한 것이라 하였다. 난간석 가운데 범자가 음각된 곳이 두 곳 있는데 그것은 개성 묘각사터에 있던 다라니석당을 일부 가져다 쓴 때문이라 하였다. 다리 옆으로는 여러 가지 비가 서있는데 그중 조선시대 명필인 한호가 썼다고 하는 ‘善竹橋’ 비석이 눈에 띄었다. 개성사람인 한석봉은 그외에도 남대문과 성균관의 명륜당 대성전 현판도 썼다고 붉은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북한 여성안내원이 설명을 해 주었다.

선죽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몽주의 충정을 그리기 위한 표충비 2개가 비각에 들어 있었는데, 북측의 것은 영조 16년에 세워졌고, 비문에는 ‘御製御筆善竹橋詩’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그 아래의 비문은 높은 도덕과 충성은 영원히 빛나고 포은 정몽주의 절개는 산과 같다는 내용의 시가 쓰여 있다. 비 뒷면에는 영조가 1740년 9월 3일 개성에 왔던 길에 선죽교를 돌아보고 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남측의 것은 고종이 1872년에 개성에 와서 시를 짓고 글씨를 썼으며 비를 세우게

하였다고 썼다. 고종은 영조가 지은 7언시를 본받아 역시 1줄 7자씩 14자의 시를 지었다.

비각 앞에서는 북측 청년이 자기가 그렸다는 조선화를 팔고 있었다. 그림은 선죽교 및 표충비 그 밖에 개성의 명소를 그린 것으로 우리의 한국화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수채화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과장과 생략을 배제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사실적인 묘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경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정작 그림을 구입하는 이는 적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차하라는 소리가 들려 정신없이 다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개성시내의 공사중인 건물이 보였는데 새로 신축중인 건물인 것 같지는 않고 보수 중인 것 같았다. 이채로운 모습은 깨진 시멘트 조각을 나르고 있는 무리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다수 섞여 있어 우리에게는 생소하였다. 개성시내의 모습을 촬영하고 싶



성균관 대성전(현재 전시실로 이용)



만월대 용두

었으나 시내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다음 답사장소는 사적 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균관으로 현재는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곳 정문앞에는 조그만한 주차장과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선죽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착하자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성안내원 3명이 나와서 맞이 해 주었다. 정문에는 고려박물관이라는 조그만한 현판이 붙여 있었으며 그곳을 들어서자 우측으로 고려성균관 안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안내원의 설명이 시작되었다. 원래 그곳은 고려 11대 문종이 대명궁이라는 별궁으로 건설하였으며 1089년에 국자감이 옮겨 온 후부터 정식교육기관으로 되었다. 충렬왕 24년(1298) 성균간으로 되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서 성균관으로 개칭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탄 후 1602년에 대성전과 서재, 1605년에 동무와 서무, 명륜당을, 1610년에 동재를 복구함으로써 모두 8년에 걸쳐 중수되었다 하며 1988년부터 개성부근에서 발굴 및 수집한 1만 여점의 문화재를 소장한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삼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함께 높이 32m, 둘레 7m의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그곳을 지나면 가구식기단의 명륜당과 그 뒤로 대성전이 위치한다. 현재 고려박물관은 대성전과 동재 서재의 건물들을 전시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대성전 앞뜰에는 용머리 2개가 놓여 있는데 하나는 수창궁에서 발견되어 이곳으로 옮겨 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월대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라 안내원은 말하였다. 수창궁은 고려 개경의 이궁 중에 하나로 조선 태조와 태종이 즉위했던 곳이기도 하다. 대성전 전시실 내부는 어두운 편으로 유물은 청자류와 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량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동재와 서재의 경우는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었으나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불일사 오층석탑의 사리구였다. 사리장엄구는 탑의 1층 탑신에서 3층금동탑과 소탑 12개, 3개의 사리기가 나왔으며 2층 탑신에서 9층금동탑, 5층금동탑 및 석제 소탑 10개가 수습되었다. 지금까지 남측에서 고려시대의 목탑을 논할 때 꼭 금동 9층탑이 언급되나 흑백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실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박물관 내부에 공민왕릉의 내부 모형을 만들어 관람할 수 있게 하였는데 12지신상이 벽화로 모사되어있고 천장에는 삼태성과 북두칠성 그리고 해와 달이 그려져 있다. 특이한 점은 고리가 달린 문을 그려 놓고 그 아래를 뚫어 놓아 혼유로를 만들어 왕비의 무덤으로 들어 갈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다. 고려박물관의 여러 가지 모형중에서 내부구조상 벽화의 모사 등에서 상당한 정성을 기울



공민왕릉 내부모형(12지신, 혼유로)



고려박물관 상점 진열장

인 것 같았다. 고려박물관의 백미는 성균관 뒤편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물이다. 그곳에서는 현화사 7층석탑, 불일사 5층석탑, 흥국사 탑 등의 여러 가지 석조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현화사탑은 1020년에 만든 것으로 각층 탑신에는 안상을 배치하고 그 내부를 불보살상으로 조각하였다. 현재 이탑과 짹을 이루는 석등은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 외부에 전시되어 있어 유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산가족인 경우라 하겠다. 불일사는 951년 광종이

모후의 원찰로 세운 것으로,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보봉산 기슭에 그 터가 있다. 북측 안내원에 따르면 1959년에 발굴을 했으며, 그 다음 해인 1960년 봄 개성시 내성동 삼각공원으로 옮겼다가 1988년에 지금 자리로 옮겨 세워 놓았다. 석탑을 해체 시 탑 내부에서 전시실에서 보았던 많은 사리기와 금동탑들이 매납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화사탑 우측경사면에 2층 이상의 탑신이 결실된 조그마한 탑 하나가 서 있다. 그 탑은 흥국사탑으로 924년 개성의 중심부인 흥국방에 세운 절인데 흥국사는 불교의 중요 행사를 주관 했으며, 정치적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 신종 초 최충현의 노비인 만적이 난을 일으킬 때 거사장소로 정한 곳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것은 기단부에 발원문이 음각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탑은 강감찬이 현종 12년(1021) 거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세운 것이라 하였다. 현재는 2층부터 탑신이 없어져서 옥개석만 올려 놓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고려시기 명문석탑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석조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발길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고려박물관 정문 좌측으로는 북측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있었는데 진열된 물건들은 대부분 북측 토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개성인삼술, 장뇌삼술, 삼산술 등이 인기가 있었고, 버섯종류로는 상황버섯이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북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용되는 화폐는 달러와 유로화를 이용하였다. 2002년 이후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는 유로화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달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것 같았다. 상점 자체가 가진 달러나 유로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몇 달러 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10달러 이상의 돈을 지불했을 때는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손님의 잔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돈을 세는 단위도 우리와는 다른데 남측의 경우 일 달러, 이 달러 등의 한문체 단어를 사용하지만 북측의 경우 순수한글 사용만을 고집해서인지 한 달러, 두 달러 등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술 2병 정도를 구입하여

숙소로 돌아 왔다. 몇시간 동안의 개성 답사였지만 다시 가지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는 보고서 준비와 8월 11일에 있을 현장설명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공교롭게도 8월 11일은 내 생일이기도 하여 35번째의 생일은 개성에서 보내게 되었다.

현장 설명회 날 한국토지공사 버스에 기문화재연구원 장경호 원장님, 노태섭 문화재청장님,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님, 고려문화재연구원 김병모 원장님, 정영화 한국고고학회 회장님 등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교수님들이 개성공단 시·발굴조사현장을 찾아 주셨다. 버스가 개성공단 토지공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여러 선생님들이 내려 오셨고 장경호 원장님은 북측에서 조사 시 물자나 건강에 이상 없는지를 많이 걱정해 주셨다. 현장설명회는 김상익 과장이 조사개요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2지점은 송만영 선생이, 5지점은 내가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간단한 조사개요를 설명한 뒤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2지점에 도착하여 송만영 선생의 현장설명이 시작되었다. 그곳에서는 중도식 무문토기를 공반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해발 24m에 위치하며 동서 폭이 8.4m, 남측은 파괴되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잔존길이는 10.3m이며 깊이는 30cm 내외이다. 주거지 전면에는 탄화목재가 산재되어 있었고 바닥은 황갈색 점토를 불처리하여 단단하게 하였다. 내부시설은 'ㄱ' 자형 노지, 벽구, 기둥구멍, 토기 저장공이 조사되었다. 이번 주거지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저장공에서 수습한 한 개체분의 중도식 무문토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량의 중도식 무문토기편들 뿐이며, 우각형파수와 함께 철도자가 출토되기도 하였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은 주거지 내 유물의 잔존 상태와 화재 흔적, 기타 터널형 노지가 의도적으로 파괴된 점으로 미루어 이주를 위한 주거지 방화로 추정되며 연대는 기원 전후로 파악된다고 송만영 선생의 간단한 2지점 설명이 있었다. 남측에서 오신 지도위원님들은 발굴 현장 보다는 주변 경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듯 개성 외곽의 풍경들을 촬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2지점 현장설명회



지도위원 단체사진

다시 버스에 올라 5지점으로 이동하였다. 5지점에서는 11~12세기의 중심연대를 가진 고려시대 건물지 4동이 조사되었는데 건물지는 한 칸 또는 2 칸 이상의 소규모의 건물지로 건물지 외부는 담장으로 둘러져 있으며 4곳에 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나 주목되는 점은 건물지 적심하부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고 鐵牛를 매납하였다. 적심이나 기단에 매납물을 놓는 경우는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 주로 토기, 말, 소탑 등이 주류를 이루나 소가 매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다. 5지점에서는 지도위원님들의 기념촬영과 단체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다음 일정은 개성 답사로 이어졌는데 답사코스는 우리가 다녀왔던 곳과 같은 장소로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자남산 여관에서 아·태 민경련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만찬회가 있었다. 자남산 여관은 개성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만찬장에는 대형 박연폭포 벽화그림이 있고 남색의 투피스를 입은 호텔 여성직원들이 음식과 술을 나르고 있었다. 이번 만찬장의 주 메뉴는 단고기였다. 우리측에서 말하는 개고기 수육이지만 조리법에서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경우 수육을 별다른 양념이 없이 조리하지만 북측의 경우는 마치 갈비찜처럼 양념이 된 수육을 만들어 남측과는 맛과 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북측에서의 현장설명회는 남측과 북측 관계자들의 만찬으로 마무리되었다. 자남산 여관에는 1층 로비에는 조그마한 서점이 우측으로 있는데 진열된 서적은 대부분 관광안내서적이며 책의 양이나 질적으로 인쇄상태가 좋은 경우는 김일성, 김정일 주석과 관련된 서적이었다. 역사와 관련된 서적으로는 주로 만화책이 많이 있었는데 고구려 역사, 조선사, 서산대사의 만화책이 눈에 띠어 몇권을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개성 자남산 여관

이번 개성공단 시·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모든 유물은 북측에 인계를 하고 철수를 해야 함으로 8월 30일로 잡혀있는 조사기간까지 약 20일 내에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끝내야 했다. 유물실측 및 기술, 유구원고 작성을 각 조사원들이 분담하여 책임 하에 작업을 진행하였다. 어느 덧 2 달 간의 조사 기간은 다 지나가고 각자 정리된 자료와 사용물품을 정리하여 남측으로 보낸 후 개성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한국토지

공사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북측 C·I·Q로 향하였다. 짧은 수속절차와 간단한 짐검사 후 우리는 다시 북측 휴전선 통문을 지나 남측으로 돌아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성에서의 조사는 내용과 질을 떠나 좋은 경험이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체제 속에서 가끔 남북조사원들 간의 의견 차도 있었으나 갈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

다. 지금도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과업(북측표현으로)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시 하나 아쉬웠던 것은 모든 일정이 우리에게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북측과 협의 하에 진행되는 관계로 남측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게 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발굴조사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남북 공동조사 시에 좀더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는 2,000만평 개성공단과 배후단지 공사 중 100만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조사원들이 북한을 다녀 올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북녘 땅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진행될 남북교류협력을 통하여 좀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북측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